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영혼의 양식 - 소선지서 강해

못된 목자

스가랴 11:15-17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마침내는 심판하십니다. 심판은 불신앙, 즉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입니다. 메시아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나 하나님처럼 대우를 받으려는 자, 이들은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를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목자. 못된 목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즉 자기 양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목자를 말합니다. 또 "강건한 자(검은 양)를 먹이지 아니하고..." 즉 검은 양을 오히려 천대하는 목자를 뜻합니다. "살진 양의 고기를 먹으며 또 굵을 찢으리라" 양의 젖이나 빨아먹고 잔인하게 다루며 괴롭히는 목자입니다. 못된 목자의 히브리어를 풀어서 해석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목자'란 뜻입니다.

이런 목자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같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17a)' 여기서 팔은 힘의 상징이고, 오른쪽 눈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이것을 처치해버린다는 것은 영력을 쇠퇴케 하고 영적 지각을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같은 못된 목자는 적그리스도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다니엘서 7장 8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네 짐승이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인 한 작은 뿔이 나타나서 앞에 있는 세 뿔을 뽑아버립니다. 뿔은 통치자, 왕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정치력을 갖고 있는 세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단7:8b)" 놀라운 통찰력과 구별력이 있음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다니엘서와 연결되는 적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사탄을 말합니다. 즉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준 것입니다. 열 뿔을 가진 적그리스도는 열 개의 나라, 즉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힘을 가졌습니다. 일곱 머리를 가졌다는 것은 국가의 우두머리가 일곱임을 말해줍니다. 열이지만 실상은 일곱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처럼 여기의 적그리스도는 힘이 있지만 정복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묘사한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니엘이 본 처음 세 짐승은 전에 있던 세상 권력자들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로서 전에 권력자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관이 표범의 모양에 곰의 발바다, 사자의 입을 가졌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잔인한 동물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앞에선 웃지만 결국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자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곰으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즉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곰 발바닥처럼 강인한 성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표범처럼 날쌔고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모든 힘은 악마, 즉 사탄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선 불법의 사람, 법을 어기는 사람, 탈법자로 적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로 묘사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정치적이면서 지극히 종교적입니다. 정치적으로 통치를 하면서 자신을 예배하게 만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같은 사탄의 줄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악한 자는 하나님의 징벌로부터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하고 하나님의 강하신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죄는 항상 사악하고 죄인은 항상 어리석습니다. 형벌 받은 큰 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은 선으로 바꾸려고 힘을 쓰지만 항상 어리석은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세 번째 악한 통치자들은 악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미련하고 악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 때문에 지도자는 백성을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고 마침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연합케 하시려고 하지만 그것이 잡혀죽을 양떼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은총의 막대기를 꺾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깨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잡혀죽을 양떼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천대합니다. 은 30개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대가를 치부하려 합니다. 유대 율법에 은 30개는 종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마침내는 심판하십니다. 심판은 불신앙, 즉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입니다. 메시아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나 하나님처럼 대우를 받으려는 자, 이들은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를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하나님은 스가랴 11장에서 가련한 양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가련한 양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2004 사명자대회 이렇게 전도한다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지옥에 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까운 이웃을 지옥으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두겠는가?

이번 사명자대회는 그 영혼들을 지옥행에서 천국행으로 옮겨 타게 하는 절호의 기회이다. 모두 태신자를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입술을 열어 복음의 나팔수가 되기를 바란다.

1. 한 사람이 반드시 한 사람의 태신자들!

- 1) 누구를 전도대상자로 삼을까?
가족, 친척, 이웃, 지역, 친분관계, 직장, 기타
- 2) 이웃 십자가 운동을 펼친다. 즉 자기 집을 중심으로 아래 윗층과 좌우의 가정마다 최소한 한 번 이상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한다.
- 3) 직장 태신자 운동: 직장에서 태신자를 정하고 1인 이상 전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전도지를 전하고 문서전도대를 통한 이슬비 전도편지를 적극 활용한다.

2. 다락방 전도

- 1) 다락방별 태신자 4명 접수 및 전도 2명을 목표로
*태신자 40명 이상, 전도 15명 : 5, 6, 7, 8, 9, 10, 12교구
*태신자 50명 이상, 전도 20명 : 2, 4, 11교구
*태신자 70명 이상, 전도 25명 : 3, 14 교구
*태신자 150명 이상, 전도 50명 : 1, 13 교구

2) 사명자대회 기간 다락방 모임에 대하여

사명자대회 기간 중 태신자 전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락방 모임에서 전도에 대한 특별교재로 공부한다. 그리고 태신자초청주일인 11월 21일을 앞두고 11월 19일에 태신자초청 열린다락방 모임을 가지고 그 동안 품고 기도하던 태신자를 초청하여 함께 모임을 갖는다. 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0월 22일: 성령의 사람, 예수의 증인 (사명자대회 주제 공유)
- 29일: 왜 전도해야 하는가?
- 11월 5일: 천국과 지옥
- 12일: 이렇게 초청하라.
- 19일: 태신자 초청 열린 다락방 (열린 다락방 특별교재)

3. 매주일 교회학교와 교구전체가 총동원되어 교회인 근지역에서 전도활동을 펼친다.

날짜	한티공원	대지역	은매거리	도곡역	한티역
10.17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10.24	5, 6	1	3	4	2
10.31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11.7	7, 8	14	13	9, 10	11, 12
11.14	5, 6	1	3	4	2
11.21	7, 8	14	13	9, 10	11, 12

- 1) 주일학교는 교사의 인솔 하에 주일 분반공부 후 11시에 지정된 지역에서 1시간 전도한다.
- 2) 교구전도대는 교구간사, 다락방장 인솔 하에 주일 후에 지정된 지역에서 1시간 전도한다.

여기서 얻은 태신자는 태신자 접수함에 접수시키고 동시에 70인 전도대 목요축호전도팀에 명단을 넘겨서 방문 전도케 하며 또 이슬비전도편지로 적극 신앙을 권한다. 전도 물품은 피켓, 어깨띠, 설교 테이프, 순례자와 주보, 교회 소개 팸플렛(104호에 준비) 등이다.

4. 70인 전도대 축호 및 노방 전도진행

현재와 같이 매주 목요일 가가호호 방문하는 축호전도를 실시하며, 수요일 및 토요일에는 커피, 컵 라면 등으로 야간전도를 펼친다. 전도회 · 선교회별 노방전도일정은 아래와 같다.

수요일(오후 2:30 104호)		토요일(오후 3:00 104호)	
날짜	담당부서	날짜	담당부서
10. 13	마리아	10. 16	바울
10. 20	에스터	10. 23	엘리아
10. 27	한나	10. 30	모세
11. 3	도르가	11. 6	빌립
11. 10	루디아	11. 13	안드레
11. 17	뵤뵤	11. 20	베드로
11. 24	마리아	11. 27	바울

5. 금요기도회 주관부서

날짜	전도회	교회학교	할일
10. 15	빌립, 도르가	유년부	주관부서 전도
10. 22	안드레, 루디아	초등부	활동 보고
10. 29	베드로, 뵤뵤	중등부	(전도회와 교회 학교)
11. 5	바울, 마리아	고등부	주관부서 특순
11. 12	엘리아, 에스터	대학부	70인 전도대
11. 19	모세, 한나	청년부	전도보고
11. 26	아브라함, 사라	신혼가정부	

태신자 명단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자!

박순선, 박내길, 오정숙, 박지현, 박준영, 전주희, 이재승, 전희덕, 이청영, 김인숙, 박종성, 정정화, 백선혜, 정은혜, 정상훈, 박의관, 허금희, 박고은, 박영은, 유재상, 양지훈, 양지승, 이호정, 유재욱,

이창현, 이서현, 김희정, 장규상, 김유진, 권혜영, 한정우, 유은호, 유은철, 유기조, 허경숙, 최정열, 박지에, 정경숙, 구자복 (다움주 계속)

이종운 목사의 설교와 신학진단

25일(월) 오후 4시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

한국교회사학연구원(원장 민경배)은 한국교회 10대 설교가 연구공개 발표회를 아홉번째로 오는 10월 25일(월) 오후 4시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갖는다. 올해 연구 대상은 우리교회 이종운 목사로 이목사의 신학과 설교를 객관적으로 분석, 진단한다.

연구 논문을 발표할 이는 신약신학자 서중석박사(연세대 대학원장), 설교학자 김세광 박사(서울 장신대 교수), 교회사학자 이상규박사(고신대 교수)이며 논찬자로 예배학자 문성모 박사(대전신대 총장)가 나선다.

이번 공개 발표회에 많은 청중들이 참여하여 한국교회강단에 대한 평가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자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지 진단된 것을 지켜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당일 행사장에서 주차권은 제공된다.

10월 성경통독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교회는 10월 셋째 주일이 되는 오늘 성경을 통독하신 성도들을 시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성경을 통독하신 성도들에게 머그 컵 세트를 성경통독 기념으로 드리고 있다.

10월 성경통독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필사 1회: 이정현 권사(12교구)
- 통독 2회: 최재춘 집사(6교구) 허인숙 권사(6교구)
서영세 집사(6교구) 최정자 권사(9교구)
이민화 권사(11교구)
- 통독 1회: 김금준 집사(4교구) 최일춘 권사(6교구)
허경미 성도(6교구) 김광신 장로(12교구)
이인선 권사(12교구) 유기찬 집사(14교구)
최낙준 집사(14교구) 최요섭(2교구)

구호물품 접수

10월20일(수)까지 접수

지난여름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라크로 파병되어 평화정착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에서 다가오는 겨울철에 현지인들을 구호할 의류와 침구 등 구호물품을 요청하고 있다. 겨울철 영하 5℃까지 내려가는 추운 파병지에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오는 20일(수)까지 사무국으로 물품을 접수하면 된다.

금주의 성구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However,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if only I may finish the race and complete the task the Lord Jesus has given me. the task of testifying to the gospel of God's grace. (Acts 20:24)



목회자 세미나 현장을 찾아서

설교와 설교자

한국교회혁신연구원이 지난 1992년에 개원하여 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하여 초교파적으로 해마다 두번씩 개최하고 있는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많은 목사님들의 관심 속에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학기로 26학기를 맞이하는 세미나는 이제 그 절반이 진행되었고 11일은 이종윤목사님과 금관교회 김홍도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다.

이종윤 목사님은 시편 119편의 말씀으로 138강 '기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의를 통해 현대인에게 사라진 '놀라운'이라는 말이 사라진 배경의 원인이 기술이나 텔레비전의 영향 보다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것인지 7가지 이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주의 말씀은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며,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며,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시기 때문이며, 하나님 말씀은 의롭고,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진 139강의에서는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 하셨는데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항상 기도하며 성경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할 것을 당부하시는 한편 진정으로 당신들은 성경의 놀라운 가치를 알고 있는지 물으셨다.

김홍도 목사님께서 인간 구조론을 가지고 강의를 계속 하셨다.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졌으며, 복음적 설교를 통해 교회의 성장이 되며 구원은 단 1퍼센트의 어떤 행위나 의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며 전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 또한 목회에는 육신적 문제를 다루는 육적목회가 있고 심리적 문제를 다루는 혼적목회가 있으며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것인가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영적목회가 있다고 하셨다. 이중 가장 최우선은 영적목회로 구원에 불타는 마음으로 임할 때 자연

발생적으로 육적, 혼적목회는 따라온다는 것이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 십자가의 부활로 영혼을 들여다보고 전도하며 특별히 기도에 항상 힘쓸 것을 말씀하셨다. 영적설교는 기도라는 것이다. 아울러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는 것과 가르칠 것을 말씀하시며 목회자의 헌신으로 5가지 수분과 불로 생명을 살리는 보혈, 회개의 눈물, 기도의 땀, 성령의 생수, 발을 씻기는 겸손한 물을 강조하셨다.

한편 세미나를 위하여 섬김이라는 명찰을 달고 많은 성도들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 한층 은혜가운데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윤찬오 장로님은 이번부터 자신의 위치에서 겸손히 섬기는 자세를 보여주자는 의미로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봉사자들의 이름을 대신했다고 하셨다. 이 권위 있는 세미나를 통해 목회자들이 더 나은 환경 가운데 영성이 회복되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섬김에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는 말씀도 덧붙였다. 넉넉한 주차공간이 있어 기쁘게 주차할 수 있다는 주차 섬김이, 빨간 투피스와 좁게 한복을 입은 친절할 안내로 밝은 인상을 더해 준 안내 섬김이, 일출 서적과 설교 테이프실에서 이번 세미나의 베스트셀러로는 이종윤 목사님의 신간 '난해 성경구절 해설'이라고 알려준 섬김이, 2층 대성전 앞에서 세미나 참석을 도와주며 하루 평균 350여 분이 참석했다며 바쁘게 움직이는 섬김이, 4가지의 차를 하루 평균 1,000여 잔씩 공급하는 섬김이, 8층 식당에서 육적 양식을 준비하느라 구슬 땀을 흘리신 섬김이 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곳곳에서 바쁜 일도 마다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섬겨주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도 더불어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유명희(편집부)



광야의 소리

천장에 매달린 굴비 한 마리

김광신 장로(당회 서기)



자랑고비 아버지가 있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시장에서 사온 굴비 한 마리를 안방 천장에 달아 놓고 식사 때 마다 밥 한 숟가락에 굴비 한번 쳐다보는 것으로 절약을 고집하다가 그 굴비가 말라버려 먹지도 못하고 버렸다는 우화가 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절약의 경우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아니다. 사온 굴비는 가족끼리 오손도손 먹을 때 제 맛이 난다. 결국 많이 사오지 않으면 절약할 수 있고 분수를 넘어 사게 되면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 교회는 지금 까지 절약 정신으로 일관해 왔고 그것이 삶 자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더 절약하고 아끼십시오" 하면 화나는 일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판단되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약은 귀한 것이고 항상 지켜야 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술선수범해야 할 필수 조항이다. "무엇부터 절약하고, 어디까지 절약해야 하나" 묻는다면 대답은 간단하다. 모든 것을 절약하고 끝까지 절약하면 된다. 물질적인 절약이 있기 전에 정신적인 절약이 앞서야 하고 자녀들이 절약하기 전에 부모가 술선수범해야 한다. 성도들 보다 제직들이 앞장서야 한다.

너무 많은 쓰레기가 주일 저녁마다 쌓이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많이 먹고 있다는 증거이고, 절약의 여지가 있다는 표징이다. 비단 예배당 헌당의 이유가 아니라라도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아 모든 일에 절제하고 아끼는 실천적 신앙의 소유자들로 우리 모두가 등록되도록 다시 한번 스스로를 가다듬어야 하겠다.

사명자대회의 기도

증인의 삶 살기 원합니다

박찬미 (청년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주시고 자녀 살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때론 세상에 넘어지고, 교만하며, 영적인 방황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다시금 일어나 도전하게 하소서.

때론 세상이 나를 속이고, 내 스스로 넘어질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주신 환경으로 믿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 주위의 한 지체 한 영혼 눈물로 붙잡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 속에 거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증인의 삶을 살 때에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살펴봐게 하시며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하며, 개혁하게 하소서.

주님의 운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시며, 철저히 헌신하고, 겸손하여 주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그 날까지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에 내 자신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찬양대 양성반 6기 수료 7기 수강생 모집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수료식

24일(주) 7기 과정 개강

지난 9월 5일(주) 개강하여 오늘 10월 17일(주)까지 7주간 교육을 받은 6기 찬양대 양성반이 오늘 수료식을 갖고 각 찬양대로 배정받아 봉사하게 된다.

또한 7기 찬양대 양성반 과정이 다음 주일(24일) 2부 예배 후 601호실에서 개강한다.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은 누구나 환영하며 윤영국 지도목사의 영성교육과 박정선 장로의 지도로 호흡법, 발성법, 악보 보는 법, 지휘 보는 법, 기초음악 이론을 배우게 된다. 오늘 수료하는 6기 찬양대 양성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권은주 김고은 김명애 김옥선 김용식 김인수 김주현 김필임 김현관 김현호 김효순 서경숙 서명조 소선자 신도섭 신봉철 유승순 이상호 조인숙 지영순 진명숙 탄금희 한홍섭 이상 23명

